

# 201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 제 1 교시

## 언어 영역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2 |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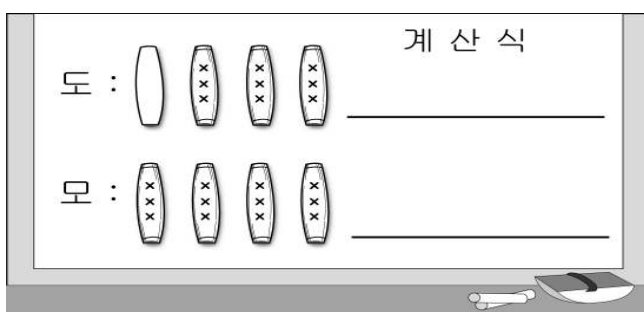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여는 말을 통해 의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
- ② 현실을 직시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 ③ 실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 ④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⑤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삶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물음) 교사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①  $(0.4 \times 0.4 \times 0.4 \times 0.4) \times 1$
- ②  $(0.6 \times 0.6 \times 0.6 \times 0.6) \times 1$
- ③  $(0.4 \times 0.4 \times 0.4 \times 0.4) \times 4$
- ④  $(0.6 \times 0.6 \times 0.6 \times 0.6) \times 4$
- ⑤  $(0.4 \times 0.4 \times 0.4 \times 0.4) \times 6$

3. (물음) 강연자가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지적 창작물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 ② 지적 창작물은 누구나 만들어 낼 수 있다.
- ③ 지적 창작물을 공유할 권리는 모두가 갖고 있다.
- ④ 기술 복제의 시대에는 지적 창작물을 제작하기 쉽다.
- ⑤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려면 이용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의 표면은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연약권 위로 100km 정도의 두께를 갖는 판들이 떠다니고 있다.
- ③ 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대부분 지표면으로 방출된다.
- ④ 판의 움직임은 맨틀 상하부의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다.
- ⑤ 거대한 댐의 건설이나 화석 연료의 개발도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5. (물음) 사회자의 역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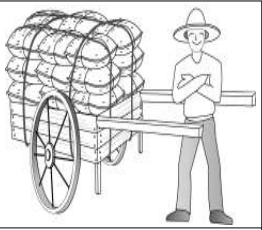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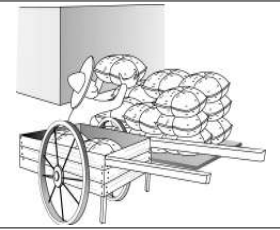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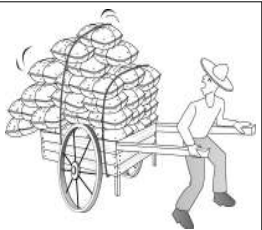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질의 형태로 대담자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한다.
- 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대담자의 설명을 보완한다.
- ㄷ. 대담자의 견해를 수궁하면서 대담을 진행해 나간다.
- ㄹ. 대담자의 설명을 요약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수레’를 소재로 하여 ‘삶의 교훈’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 작                                                                                | 중 간                                                                                | 결 과                                                                                 |
|------------------------------------------------------------------------------------|------------------------------------------------------------------------------------|-------------------------------------------------------------------------------------|
|   |   |   |
| 짐을 적정하게 실은 수레                                                                      | 순조롭게 가는 수레                                                                         | 무사히 도착한 수레                                                                          |
|  |  |  |
| 너무 많은 짐을 실은 수레                                                                     | 기울어진 수레                                                                            | 뒤집힌 수레                                                                              |

- ① 일을 시작할 때부터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 ② 실패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 ③ 잘못을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으면 화(禍)를 부른다.
- ④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할 수 있다.
- ⑤ 처한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포부를 크게 지녀야 한다.

7. 교지(校誌)에 쓴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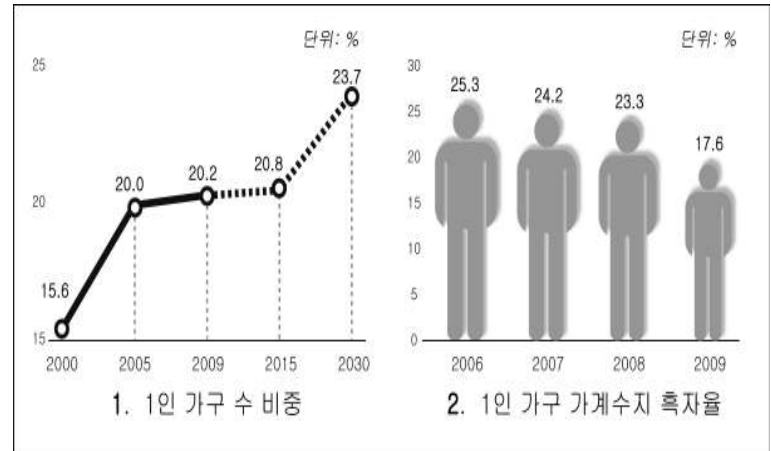
1. 유추를 활용하여 진술한다.
2. 대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3.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한다.

- ① 비속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고운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줍니다.
- ② 장거리 운전자에게 휴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엄쉬엄 공부하세요.
- ③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 ④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말라 죽듯이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 ⑤ 컴퓨터와 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보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증가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통계 자료



(나) 신문 보도 자료

1.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확산에 따라 독거노인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 ○○일보 -

2. 30대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 결혼관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신문 -

(다) 인터뷰 자료

1.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들 중 상당수가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대학교수) -

2.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저하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① (가) - 1, 2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수 증가 추세와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 ② (가) - 1과 (나) - 1을 활용하여, 가족 형태의 변화가 1인 가구 수 비중이 높아지는 요인의 하나임을 밝혀야겠어.
- ③ (나) - 1, 2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30대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함을 지적해야겠어.
- ④ (나) - 1과 (다) - 1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가구 비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⑤ (나) - 2와 (다) - 2를 활용하여, 30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장려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9. <보기>는 ‘문화 나눔 운동의 확산’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문화 나눔 운동의 현황 ..... ㉠

II. 본론

1. 문화 나눔 운동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가. 문화 공연의 관람 횟수 증가 ..... ㉡

나. 문화 나눔 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 부족

다. 문화 향유 공간 및 프로그램의 부족

2. 문화 나눔 운동의 확산 방안 ..... ㉢

가. 문화 나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나. 문화 나눔 참여 단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다. 문화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

III. 결론: 문화 나눔 운동의 중요성 강조 ..... ㉤

- ① ㉠에는 문화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한다.  
 ② ㉡은 ‘II-1’과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삭제한다.  
 ③ ㉢에는 ‘II-1-다’를 고려하여, ‘문화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은 현황과 관련되므로, ‘I’로 옮긴다.  
 ⑤ ㉤은 ‘문화 나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로 고친다.

10. <보기>는 ‘관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관습적으로 굳어져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를 ‘관용어’라고 한다. 관용어는 그 의미가 특별하게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① 등을 돌리는 순간 목에 통증이 왔다.  
 ② 그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③ 어머니는 손이 커서 늘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신다.  
 ④ 그는 10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었다.  
 ⑤ 고향에 두고 온 아이가 눈에 밝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11. <보기>는 ‘우리 고장의 맛집 소개’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맛집 ‘술바람’은 마치 수목원에 있는 것 같은 ㉠ 느낌을 갖게 하는 음식점입니다. 이곳은 잘 가꾸진 정원도 아름답고 ㉡ 뒷뜰 너머 울창한 숲과 맑은 개울이 있어 운치가 있습니다.

㉢ 주인 내외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재배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합니다. ㉣ 밑반찬으로 내놓는 연근조림이나 나물무침, 갓김치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양념으로 만든 요리는 미각을 돋우어 줍니다. ㉤ 이처럼 질 좋은 국산 한우로 만든 갈비찜은 이 집의 자랑거리입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므로 계절마다 메뉴가 조금씩 바뀝니다. 건강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①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므로 ‘느낌을 주는’으로 고쳐야겠어.  
 ② ㉡은 맞춤법에 맞도록 ‘뒤뜰’로 고쳐야겠어.  
 ③ ㉢은 문장이 어색하므로 맨 앞에 ‘채소는’이라는 말을 추가해야겠어.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⑤ ㉤은 문맥이 자연스럽게 못하므로 ‘특히’로 바꿔야겠어.

12. <보기1>의 ㉠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1 >

[표준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ㄱ,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 3.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보 기 2 >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주창한 자유사상은 미국 독립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미국의 독립 선언문은 개인이 ㉠ 희망하는 대로 ㉡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역설하였고, 모든 권력은 국민의 ㉢ 동의에서 나와야 하며, 정부는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   | ㉠ | ㉡ | ㉢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d |
| ③ | b | d | a |
| ④ | c | b | d |
| ⑤ | d | c | b |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하늘의 도 또한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나를 기리다가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공명(功名)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앓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나)

잔물결에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연꽃**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조용히 고여 있다.  
짧은 담벽에 의지하여 **고해(苦海)**를 바라보니  
욕랑(慾浪)이 하늘에 차 넘치고, **탐천(貪泉)**이 세차게 일어난다.\*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이 누구인가.  
평생을 다 살아도 백 년이 못 되는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낮은 벼슬을 전전하고 부귀에 늙어서도  
㉠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겨서  
천지에 우유(優遊)하고 **강산(江山)**에 누우니  
사시(四時)의 내 즐거움이 어느 때 없을런가.  
누항(陋巷)에 안거(安居)하여 단瓢(簞瓢)에 시름없고  
세로(世路)에 발을 끊어 명성(名聲)이 감추어져  
은거행의(隱居行義) 자허(自許)하고\* 요순지도(堯舜之道) 즐기니  
내 몸은 속인(俗人)이나 내 마음 신선(神仙)이오  
㉡ 속세가 지척(咫尺)이나 지척이 천 리로다.

— 이서, 「낙지가(樂志歌)」—

\* 욕랑(慾浪)이 ~ 일어난다 : 욕망과 탐욕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음을 비유한 표현.  
\* 황량(黃梁) : 차지지 않고 메진 조. 매우 빠른 시간에 익는 곡식.  
\* 은거행의(隱居行義) 자허(自許)하고 :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며 의로운 행동을 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고.

(다)

양반은 대추 세 개면 끼니를 잇는다는데 책장에 아직도 지저분하게 서책들이 꽂히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발도 할 수 있는 염치에 걸핏하면 궁조를 늘어놓는 걸 보면 적실히 양반의 손(孫)은 아닌 게 분명하다.

㉢ 양반의 손이 못 될까 봐 걱정이 아니라, 하고많은 사람이 대추 세 개도 못 먹을 신세가 될까 봐 걱정거리다.

벌써 햇수로 이 년 전 이야기다.

영성 드문하게 ㉣ 내 책장이 이가 빠지기 시작한 건 그날 처음이 아니언만 아무튼 그날도 내 책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권(單券)으로 된 ‘강희자전(康熙字典)\*’이 한 권, ‘단씨설문해자주(段氏說文解字注)’ 축쇄판이 한 갑, 그리고 이 밖에 또 무슨 책이든가 두어 가지를 합해서 끼고 나오면서, 큰 구실이나 하러 가는 것처럼 마누라더러,

“내 곧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리우.” 하고는 쏜살같이 명동으로

향했다.

내 속 요량으로는 ‘오늘 수입에서 적어도 쌀 한 주발과 고깃근은 살 수 있으려니’ 싶어서 몇 달 만에 지글지글 고깃점이나 구워 먹을 행복을 머리에 그리면서 나선 판이었는데, 의외에도 ㉤ 내 공상은 공상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모두 백 원 드리지요. ‘강희자전’만은 대접해서 오십 원을 찢습니다. 그래도 이걸 칠십 원 받는다 쳐도 이십 원밖에 못 얻어먹는 폭입니다.”

쌀 한 말에 팔백 원 하는 세상에 ‘강희자전’ 값이 겨우 칠십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책을 사는 양반의 말씀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 눈만 떴다 감았다 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책사(冊肆)에를 가 본댔자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말만을 들을 것 같고, 또 그걸 가지고 상판 광고나 시키는 것처럼 이 집 저 집 기웃거릴 맛도 없고, 더구나 그의 말이 어쨌든 ‘대접해서 오십 원 찢다’는데 비록 천금 값어치가 된대손 치더라도 ‘여보, 당치 않는 소리요, 안 되오’ 하고 빼앗아 가지고 돌아설 용기도 안 나서 그야말로 복잡 미묘한 심리에서 “옛, 그러우.” 하고서는 주는 대로 백 원을 받아 가지고 나서면서 이를 짹 물었다.

세상이 하도 살기가 어려워져 가다오다 말끝에 “무어니 무어니 해도 장사가 제일이야. 그래도 서생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책장사밖에 없어.” 하면 “책장사? 흥, 그보다는 고리대금이 몇 배 낫지.” 하는 친구가 있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했더니, 하긴 당해 놓고 보니 그 친구가 역시 경험 있는 소리를 했구나 싶었다.

그 뒤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 ‘강희자전’이 팔리거나 앓았나 싶어서 그 책사에를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뺨질나게 드나들었다.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칠십 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부리나케 드나들어 보았으나, 요행으로 내 ‘강희자전’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꽃아둔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꼭 한 달 만에야 겨우 돈 칠십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

“여보, 이 책 나 삽니다.” 하고 ‘강희자전’을 뺏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돈 칠십 원을 주인 앞에 던졌다.

주인은 안색이 별안간 창백해지면서,

“그건 파는 책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다.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오십 원에 사서 이십 원을 붙여서 칠십 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소?”

“아닙니다. 그러지 맙쇼. 두고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곧 ‘강희자전’을 도로 빼앗을 것같이 굴었으나, 나는 잠자코 문을 열고 길로 나서고 말았다. 길을 걸으면서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친구가 내가 갖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갔더라면 필시 한 오백 원쯤은 받았으려다.’

— 김용준, 「강희자전(康熙字典)과 감투」—

\* 강희자전(康熙字典) : 청나라 강희제 때 역대 자전을 집대성한 중국 최대의 자전.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 ③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경계하고 있다.

14.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형식을 통해 극적 효과를 살리고 있다.
- ② 도치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대상을 인격화하여 그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의 ㉠ ~ ㉣의 의미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와 (나)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고전 시가 속에서 자연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간인 ㉠ 인간 세계와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연은 삶의 기쁨을 누리는 ㉡ 친화의 대상이거나 본받을 만한 ㉢ 교훈의 대상이 된다.

- |   | ㉠      | ㉡      | ㉢      |
|---|--------|--------|--------|
| ① | (가) 구름 | (나) 탐천 | (가) 비  |
| ② | (가) 구름 | (나) 강산 | (나) 고해 |
| ③ | (나) 탐천 | (가) 비  | (나) 연못 |
| ④ | (나) 고해 | (가) 비  | (나) 강산 |
| ⑤ | (나) 고해 | (나) 강산 | (나) 연못 |

16. 다음은 (다)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심정이나 태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장면 | # 1         | # 2            | # 3          | # 4              |
|----|-------------|----------------|--------------|------------------|
| 행위 | 강희자전을 팔려고 함 | 책사 주인과 가격을 흥정함 | 책사를 반복하여 출입함 | 팔았던 책을 다시 사서 돌아옴 |

- ① # 1 : 생활고(生活苦)에 시달리고 있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2 : 귀한 책이 값싸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어하고 있다.
- ③ # 3 : 판 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 봐 초조해 하고 있다.
- ④ # 4 : 판 책을 책사에서 다시 구매한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
- ⑤ # 1과 # 4 : 책을 팔고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장사꾼의 잇속에 씹쓰레하고 있다.

17. ㉠ ~ ㉥에 대한 이해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어.
- ② ㉡ : 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탄식하고 있어.
- ③ ㉢ :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 : 책장이 비어가는 데 대한 아픔이 내포되어 있어.
- ⑤ ㉥ : 일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권력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재화나 소유물로 생각한다. ‘기득권층이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라는 말은 권력의 소유 개념에서 ㉠ 나온 말이다. 마치 권력이 손에서 손으로 건네줄 수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일단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푸코는,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모인 사회는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코처럼 무수한 복수의 권력으로 뒤덮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미치는 힘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불균형을 이룬다. 그 비대칭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곧 ‘**권력관계**’이다. 힘의 [A] 불균형이 있다면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도 역시 ‘권력관계’이다. 권력은 소유라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고, 점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작하는 기술과 기  
능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육체에 직접적인 강제를 가하는 왕조시대의 권력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교묘하게 사람들을 감시하는 근대적 규율관계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식 덕분이었다. 과거의 권력은 물리적 폭력에 가까웠다. 힘은 있을지언정 지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권력은 이와 다르다. 무력으로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온갖 학자들을 불러 모은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는 물리적 폭력은 상대방의 진정한 복종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과 관계있는 지식의 가치 판단 기준은 ‘진실’이다. 그런데 ‘진실’은 과연 진실일까? 한 사회의 지적 지배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 되는 게 아닐까?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개인적인 축재를 한 것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 사회는 그것을 범법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듯 지식은 자율적인 지적 구조라기보다는 사회 통제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한 사회에서 ‘진실’, ‘학문’, ‘지식’이란 결코 순수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권력과 욕망에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18. 위 글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권력관계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 ② 권력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③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④ 권력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⑤ 권력을 소유물로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19.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것으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 ① 권력을 얻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권력을 가진 자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판하는 말이군.
- ③ 권력을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군.
- ④ 권력이 욕망에 물들어 진실성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는군.
- ⑤ 권력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하는군.

20. [A]의 ‘권력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학을 맞아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 ② 한우 유전자 연구소 강 박사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소를 생산하였다.
- ③ 김 과장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동료들과 협의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였다.
- ④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습과 닮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캐릭터를 아바타에 반영한다.
- ⑤ 연극반 반장인 철수는 학예제를 앞두고, 연극반원들에게 담당 역할을 분배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21.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 해괴한 소문은 어디서 나왔느냐?
- ② 올해 시장에 새로 나오는 상품이 있느냐?
- ③ 비가 그치자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어 나왔다.
- ④ 김 의원이 정계에 나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 ⑤ 나무의 짙은 한겨울 눈서리를 이겨내고 나오는구나!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피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 군산 목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과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 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나)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 이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짝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 골목을 들어서면 계집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 광재구, 「절망을 위하여」 —

(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땀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툇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A]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 시우쇠: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22.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일상에 매몰된 도시민의 애환이 담겨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가) ~ (다)에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 ⑤ (가) ~ (다)에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가 형상화되어 있다.

23.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② 반어적인 기법으로 시적 대상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나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변화하는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24. &lt;보기&gt;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시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 보 기 &gt;

공동체의 삶을 형상화한 시에는 곧잘 **욕망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뒤섞여 나타난다. 전자는 결핍 상태를 채우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을, 후자는 욕망을 억누르는 제약 조건을 함축한다. 이 두 언어는 상충할 때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화 속에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 ① (가)의 ‘그들’과 (나)의 ‘우리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 ② (가)의 ‘어둠’과 (나)의 ‘어둠’은 욕망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제약 조건을 상징한다.
- ③ (가)의 ‘빈 배’와 (나)의 ‘마음의 배고픔’은 현실이 결핍 상태를 암시한다.
- ④ (가)의 ‘마늘 한 접’과 (나)의 ‘종이배’에는 소박한 바람이 함축되어 있다.
- ⑤ (가)의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것과 (나)의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는 것은 긍정의 힘으로 작용한다.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공간이다.

26. &lt;보기&gt;는 [A]를 모방하여 지은 시구이다.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 보 기 &gt;

차가운 아스팔트 / 그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 낙엽  
 처럼 느껴질 때 /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불현듯 /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 자그마한 들꽃이고 싶다.

- ① [A]와 같이, 풍자적 수법으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제시한다.
- ② [A]와 같이, 하강 이미지를 살려서 시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 ③ [A]와 달리, 화자의 개인적 소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 ④ [A]와 달리, 대조적인 이미지로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⑤ [A]처럼, 통사 구조를 유지하되 수식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한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선택 상황에 직면할 때 갈등을 겪게 된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욕구, 요소, 기회 또는 목표에 당면했을 때 일어나며, 한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 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나) 우리가 겪는 갈등에는 먼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매력적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할 때 나타나는 ‘접근-접근’ 갈등이 있다. 반대로 동일한 크기의 불쾌한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의 ‘회피-회피’ 갈등도 있다. 이런 갈등은 강렬한 스트레스이면서 쉽사리 해결되지도 않는다. 또 어떤 한 가지 목표가 매력적인 것과 불쾌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 ‘접근-회피’ 갈등의 경우에도 해결이 만만치 않다. 매력적인 쪽에 접근할수록 불쾌한 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목표가 매력적인 것과 불쾌한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중 접근-회피’ 갈등 상황이 생긴다.

(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먼저 어떤 대안이 가진 매력적인 속성이 그렇지 못한 속성을 보충하도록 하는 ‘보충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서는 각 속성에 가중치를 둬서 결정을 돕는다. 보충모형은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점과 단점에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라) 그런데 ‘보충모형’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이보다는 ‘비보충모형’을 많이 사용한다. ‘비보충모형’은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중시하는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모형은 ‘보충모형’에서와 같은 계산이 필요 없고, 가장 우선하는 속성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마)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보충모형에 비해 불합리해 보이는 비보충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사람들의 기억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 때문에 모든 대안들을 일일이 검토해 볼 수가 없고, 그 결과 최선의 선택을 찾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간과 돈 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빨리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서’ 그 제품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편찮은 대안을 주로 선택하게 된다.

28. <보기>의 사례에서 ‘최선의 결정’을 도식화하고자 한다. 결정모형과 도식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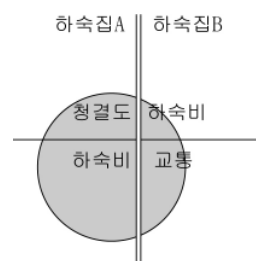
【 사례 】

철수는 하숙비, 교통, 청결도를 기준으로 하숙집을 구하러 다녔다. A는 청결하지만 하숙비가 비싸고, B는 하숙비는 싸지만 교통이 불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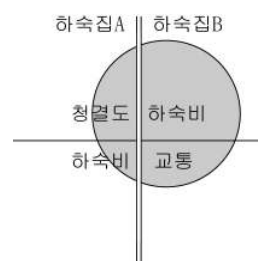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각 하숙집의 장단점을 펼쳐 놓고 판단을 하려 했지만, 한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 요소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철수는 ‘하숙비’에 가중치를 둬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 도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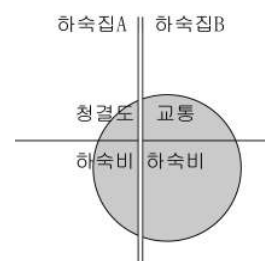
① 보충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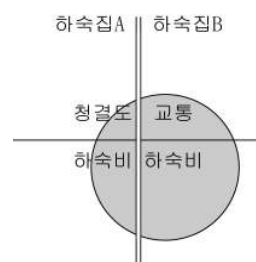
② 보충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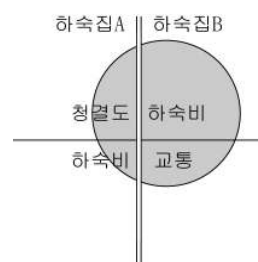
③ 보충모형



④ 비보충모형



⑤ 비보충모형



27. (가) ~ (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의사결정의 개념
- ② (나) : 선택의 상황에서 겪는 갈등의 유형
- ③ (다) : 보충모형에 의한 의사결정
- ④ (라) : 비보충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의 문제점
- ⑤ (마) : 비보충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

29.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기 몸살로 아픈데 병원에도 가기 싫을 때
- ② 비싼 신차를 사야 할지싼 중고차를 사야 할지 고민할 때
- ③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 망설일 때
- ④ 법학 강의도 듣고 싶고 철학 강의도 듣고 싶은데 강의 시간이 겹칠 때
- ⑤ 지방 전보 명령을 받고서 지방으로 가기도 싫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싫을 때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지개는 태양광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반사·굴절되어 나타나는 빛의 분산 현상이다. 태양광은 물방울 내에 골고루 입사되어 굴절과 반사를 거치면서 그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지개는 왜 바깥쪽이 빨간색이고 안쪽이 보라색일까? 또 무지개는 왜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는 뜨지 않는 것일까?

두께가 일정한 유리판에 백색광을 입사시키면 이론적으로는 파장이 다른 여럿의 빛깔을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파장에 따른 굴절각의 차이가 매우 작아 실제로는 분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육안으로는 분산을 확인할 수 없다. 반면에 프리즘은 평행하지 않은 두 표면에 의해 굴절각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빛이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물방울 내에서 한 번의 반사와 두 번의 굴절<sup>㉠</sup>로 만들어진다. 물방울은 곡면으로 되어 있고, 이 곡면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므로 굴절각의 차이가 커지면서 분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다. 물방울로부터 분산되어 나오는 빛의 각도는 특정 각도로만 많은 양의 빛이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각을 ‘무지개각’이라고 한다. 빨간색 빛의 무지개각은 42°, 보라색 빛의 무지개각은 41°이다. 즉 백색광이 물방울에 들어갔을 때, 42°와 41° 사이로 모든 무지개색 빛이 퍼져 나가게 된다.

무지개의 형태와 색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산 표면에 수 많은 물방울이 붙어 있고, 백색광이 우산꼭지에서 손잡이 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우산이 42°만큼 펴 있는 상태라면, 물방울들로부터 빨간색 빛이 42° 각도로 퍼져 나가고, 보라색 빛은 41° 각도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때 우산 꼭지에 눈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42°로 퍼져 나가는 빨간색 빛만이 우산 꼭지를 통과하게 되므로 우리는 빨간색의 동그란 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42°에 있는 모든 물방울로부터는 빨간색 빛만이, 41°에 있는 모든 물방울로부터는 보라색 빛만이 우리 눈으로 들어 오게 된다. 따라서 무지개는 바깥쪽이 빨간색이고 안쪽이 보라색인 원형이 된다. 원래 원형인 무지개는 땅 위에서 보기 때문에 반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무지개 주위로 이차 무지개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이차 무지개는 색 배치가 일차 무지개와는 반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 일차 무지개에 비해 색이 흐리다. 이 현상은 일차 무지개가 물방울 내에서 백색광이 한 번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데 반해, 이차 무지개는 두 번의 반사가 일어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차 무지개의 무지개각은 빨간색 빛이 50°, 보라색 빛은 54°가 되어 일차 무지개와는 반대의 색 배치가 된다.

3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친숙한 소재를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ㄴ. 자연 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을 반박하여 새롭게 해석한다.  
 ㄷ. 자연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신뢰성을 높인다.  
 ㄹ. 질문 형식을 활용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①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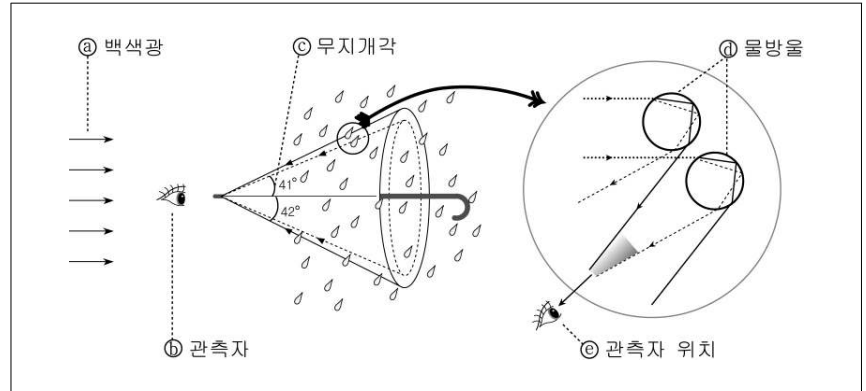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1. 다음은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지개 현상을 만들어 내는 빛이다.  
 ② ㉡의 위치가 바뀌면 눈에 보이는 무지개도 달라진다.  
 ③ ㉢의 41°로 퍼져 나오는 무지개색은 보라색 빛이다.  
 ④ ㉣의 물방울에서는 한 가지 색깔의 빛이 나온다.  
 ⑤ ㉤가 지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원형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

32. ㉦의 이유로 타당한 것은?

- ① 물방울의 곡면에 의해 빛의 굴절각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② 특정 무지개각에서만 이차 무지개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③ 보라색 빛의 무지개각이 빨간색 빛의 무지개각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④ 이차 무지개를 구성하는 물방울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물방울 내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때마다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3. ㉠ ~ ㉤ 중, 조사 ‘로’의 의미가 위 글 ㉠과 일치하는 것은?

[ 1

점]

#### 수행평가 과제 : ‘로’의 의미 찾기

- 품사 : 조사  
 ◦ 놓이는 위치 :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  
 ◦ 의미  
 •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냄 ..... ㉠  
 •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냄 ..... ㉡  
 •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냄 ..... ㉢  
 •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냄 ..... ㉣  
 • 변화의 결과를 나타냄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공장 지대의 한 사무실에서 병일은 회계 장부 정리, 사무실 청소, 심부름하기 등 잡다한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비를 만나 사진관 앞에서 비를 긋고 있던 병일은 사진관 주인과 통성명을 한 뒤, 술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숙방으로 돌아온다.

하숙방에 돌아온 병일이는 머리맡에 널려 있는 책을 독여서 베고 누웠다.

그는 **천장**을 쳐다보며 이 년 내로 매일 걸어나가는 자기의 변화 없는 생활의 코스인 ‘오늘 밤 비 오는’ 길에서 보고 들은 생활면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물론 진기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같은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고서 생각하는 자기가 이상하리만큼 평범하고 숙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같이 음산하게 벌어져 있는 현실은 산문적이면서도, 그 산문적 현실 속에는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어떤 힘찬 리듬이 보이는 듯하였다. 그리고 그 리듬은 엄숙한 비관의 힘으로 변하여 병일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듯하였다.

‘내게는 청개구리의 뱃가죽만한 탄력도 없고, 의액이 풀잎 같은 청기도 날카로움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반성이 머릿속에 가득 찬 병일이는 용이히 올 것 같지 않은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다.

우울한 장마는 계속이 되었다. 그것은 태양의 얼굴과 창공과 대지를 씻어 낼 패기 있는 폭풍우를 그림계 하는 곳 은비였다.

이 며칠 동안에는 얼굴을 편 태양을 볼 수가 없었다. 혹시 비가 개는 때라도 열에 뜬 태양은 병신같이 마음이 곳 었다.

[A] 오래간만에 맞은편 하늘에 비긴 무지개를 반겨서 나왔던 아이들은 수목 없는 거리의 처마 아래로 다시 쫓겨갈 밖에 없었다.

밤하늘에는 별들도 대개는 불을 켜지 않았다. 설새없이 야수때 같은 검은 구름이 달리었다. 그러고는 또 비가 구질구질 내리었다. 빗물 권 웅덩이에는 수없는 장구벌레들이 끓어 낸 신경줄기같이 꼬불거리고 있었다.

병일이는 요즈음 독서력을 전혀 잃고 말았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난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즘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전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

[B] 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이는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리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리었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치었다는 말이 병일이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에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인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린 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섬기는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게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얘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시었다.

밤 열두 시가 거의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집 이냐!’ 하는 반성은 가려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요즈음 사진사는 술을 사양하는 때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 수정에 실수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 술을 끊어 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장마에 손님이 없어서 그이 역시 우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병일이가 술을 사서 권하면 서너 잔 후에는 이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오늘도 유쾌해진 사진사가 병일이에게 잔을 건네며,

“긴상, 밤에는 무엇으로 소일하시우…….” / 하고 물었다.

전에는 사진사가 주워섬기는 화제는 대부분이 사진사 자신의 내력과 생활에 관한 얘기로, 자랑이었다. 혹시 도를 지나치는 그의 살림 내정 얘기에 간혹 미안히 생각되는 때가 있었으나 마음 놓고 들으며 웃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던 것이 이 며칠은 병일이의 술을 마시는 탓인지 사진사는 병일이의 생활을 화제로 삼으려는 것이 현저하였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 말의 퇴전이 발호하여서 : 활자화되어 있는 말들이 매력을 잃고 괴롭혀서.

34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술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 ③ 시점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3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1 >

소설 속에는 현실적 가치(일상의 행복 찾기, 부 추구하기 등)를 추구하는 ‘현실형’ 인간과 자신만의 정신적 가치(독서에 몰입하기 등)를 추구하는 ‘관념형’ 인간이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접촉으로 등장인물은 한쪽으로 동화되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다가 본래의 특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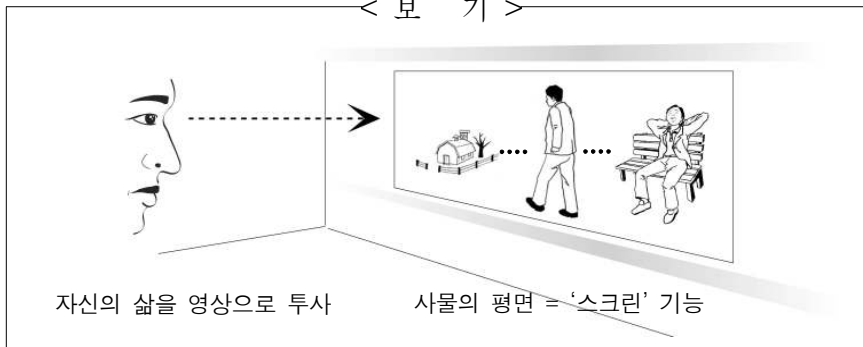
< 보 기 2 >

㉠ 하숙방      ㉡ 사무실      ㉢ 사진관

- ① ㉠에서 ‘병일’은 최근 들어 현실형에서 관념형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회의한다.
- ② ㉡에서 ‘병일’은 활자와 인연 없이 살아가는 현실형 인간인 ‘사무실 주인’과 접촉하며 그와 충돌한다.
- ③ ㉢로 찾아가게 되면서 ‘병일’은 ‘사진사’를 부러워하며 현실형과 관념형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 ④ ㉠과 ㉡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병일’은 현실형 인간인 ㉢의 ‘사진사’와 접촉을 하며 소통한다.
- ⑤ ㉡와 ㉢에서 현실형 인물과 갈등을 느끼던 ‘병일’은 ㉠로 돌아와서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6. 천장이 <보기>의 ‘스크린’이라 했을 때,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 보 기 >



- ① 이마 넓은 가을이 찾아오면 / 우리 마음은 둥글어진다 거년  
에 / 입다 둔 무명으로 갈아입고 / 식탁에 앉아 있으려니 /  
보이지 않게 먼지들이 / 국화문 벽지에 쌓인다.
- ②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짜올린 / 여기는 / 지상. /  
연민한 삶의 길이어. / 내 신발은 십 구문 반(十九文半)
- ③ 그 겨울 아침 함박눈 내려쌓이던 골목 / 뒤돌아보며 바쁜 걸  
음 / 모퉁이 사라지시던 어머니. / 박수근의 기름 장수 목판화  
(木版畵) 한 폭으로 살아서 / 오늘은 내 책상머리를 울고 가  
시네.
- ④ 누가 나를 불렀나? / 유리창에 가득 찬 밤이 / 내 얼굴을 쳐  
다보는 것 같아 / 등을 돌리고 누우며 / 홀로 한 번 더 말해  
본다 / 나는R.H.마이너스.피.가.아.닌.데.뭘...
- 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  
록 태어났다.

37.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장마’는 현재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
- ② [B]는 ‘책’을 사들이던 인물의 태도 변화를 보여 준다.
- ③ [C]에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인물의 자기 위안이 나타난다.
- ④ [A]와 [C]에는 ‘비’를 대하는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 ⑤ [B]의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이 [C]에 드러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단어와 문법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발화할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하여 행동을 하게 된다. ‘거기에 6시까지 갈게.’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발화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실제적인 수행력을 갖는 행동을 유발한다. 이처럼 화자의 발화와 함께 취해지는 행위를 화행(話行, speech acts)이라고 하며, 화자의 발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체계화한 이론을 ‘화행이론’이라 한다.

오스틴(Austin)은 발화 속에는 세 가지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언표적 행위’로 화자가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며, 둘째 ‘언표내적 행위’는 언표적 행위와 함께 수행되는 행위로 화자의 발화 의도와 관련된다. 이것은 오스틴의 제자 설(Searle)이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의 기본 단위는 언표내적 행위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발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셋째 ‘언향적 행위’는 발화의 결과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방금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이 다시 들어오면서 ‘여보, 비가 오네.’라고 말할 때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는 언표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는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우산 좀 찾아줘.’와 같은 뜻의 요청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표적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표현되는 요청과 같은 화자의 의도를 ‘언표내적 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 따라 아내가 우산을 준다면 발화의 결과 일어나는 이 행위가 언향적 행위가 된다.

발화 행위는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이라고 할 때 이 문장 유형들의 일반적인 언표내적 행위는 각각 진술, 질문, 명령 또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의 형태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언표내적 행위가 일치할 경우를 직접화행이라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간접화행이라 한다.

예컨대 ‘내일은 내 생일이야.’라는 문장은 평서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만약 화자가 이 문장을 평서문의 일반적 언표내적 행위인 진술의 의도로 말한다면 이 문장은 언표내적 행위와 문장의 형태가 일치하는 직접화행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화자가 처한 상황 맥락상 발화 의도가 ‘내일은 내 생일이니까 기억해 줘.’라든지 ‘내일은 내 생일이니까 선물 꼭 사 와라.’라는 의미라면, 이 문장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의미 대신 요청과 명령이라는 다른 언표내적 행위가 이루어진 간접화행이 된다. 일반적으로 간접화행은 직접화행보다 부드럽고 공손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38.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화행이론의 유용성
- ② 화행이론의 연구 대상
- ③ 발화에 포함된 행위의 종류
- ④ 발화 의도와 문장 형태의 상관성
- ⑤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을 나누는 기준

39. 글쓴이의 견해를 수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A: 너, ㉠ 내일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B: 어찌지, 동생과 약속이 있어.  
 A: 시간 맞추기 참 어렵네. ㉡ 그럼 언제 같이 볼 수 있어?  
 B: ㉢ 모래는 가능할 것 같아.  
 A: 그럼, ㉣ 예매는 내가 할게. ㉤ 약속 잊으면 알지?

- ① ㉠의 형태는 질문을 통해 해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자가 의도하는 언표내적 행위와는 일치하지 않아.
- ② ㉢처럼 대답한 것을 보니, B는 ㉡을 발화한 A의 의도를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야.
- ③ ㉣을 ‘예매는 내가 할 테니 밥은 내가 사.’라는 의도로 보면 간접화행으로 볼 수 있어.
- ④ ㉤은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직접화행이야.
- ⑤ ㉠ ~ ㉤은 모두 발화하는 순간 언표적 행위가 실현된 거야.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부서진 죽창 틈으로 살을 쏘나니 바람이요, 무너진 현 벽이며 현 자리에서 벼룩, 빈대가 온 몸으로 기어든다. ㉠ 밤은 깊어 삼경이요 궂은비는 내리는데 옥 밖으로 봉사 하나 지나가되 ㉡ 서울 봉사 같으면, ‘문수(問數)하오.’라고 외치려마는 시골 봉사라 ‘문복(問卜)하오.’라고 외치며 가니,

춘향이 듣고,

“여보 어머니, 저 봉사 좀 불러 주오.”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 “게 뉘기. 게 뉘기니.”

“춘향 어미요.” / “어찌 찾나.”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봉사님을 잠깐 오시라 하오.”

봉사가 옥으로 갈 때 춘향 어미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할 제 봉사는 춘향이가 천하일색(天下一色)이란 말을 듣고 반가워한다.

“자네가 춘향 각시인가? 대체 나를 어찌 청하였나?”

“예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흉몽을 꾸었기에 해몽도 하고 우리 서방님이 어느 때나 나를 찾을까 길흉 여부를 점치려고 청하

였소.”

봉사가 점을 치는데,

“저 태서(太筮)의 믿음직한 말을 빌어 존경을 다하여 축원하옵나니 하늘이 언제 말씀하시었고 땅이 언제 말씀하셨으리요 마는 두드리면 곧 응하시는 것이 신령하심이니 응감하시어 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통(算筭)을 철정철정 흔들더니,

“어디 보자, 일이삼사 오륙칠. 허허 좋다. 상괘(上卦)로고. 칠간산(七艮山)이로구나. 옛날 주 무왕(周武王)이 벼슬할 제 이 괘를 얻어 금의환향하였으니 어찌 아니 좋을손가. 자네 서방님이 불원간에 내려와서 평생 한을 풀겠네. 걱정 마소. 참 좋거든.”

춘향이 대답하되,

“말대로 그러면 오죽 종사오리까. 간밤 꿈 해몽이나 좀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자상히 말을 하소.”

“창 앞의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단장하던 거울이 깨져 보이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뵈고 태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말라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B] 봉사 이윽히 생각하다가 양구(良久)에 왈,  
 “꽃이 떨어지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울이 깨어지니 어찌 큰 소리 한 번 없겠는가.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음은 만인이 다 우러러봄이라. 바다가 말랐으니 용의 얼굴을 볼 것이며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좋다. ㉢ 쌍가마 탈 꿈이로세. 걱정 말게. 멀지 않네.”

한참 이리 수작할 제 뜻밖에 까마귀가 옥 담에 와 앉더니 까옥까옥 울거늘 춘향이 손을 들어 후여 날리며,

“방정맞은 까마귀야. 나를 잡아 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가만있소.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지. 좋다. 좋다. ‘가’자(字)는 ‘아름다울 가(嘉)’요, ‘옥’자(字)는 ‘집 옥(屋)’이라.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원간 돌아와서 평생에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소. 두고 보고 훗날 영귀(榮貴)하게 되는 때에 팔시나 부디 마소. 나 돌아가네.”

춘향이 장탄수심(長歎愁心)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한양에서 과거 급제한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 월매와 함께 옥으로 찾아간다.

옥중의 춘향이 모친 월매의 음성 듣고 깜짝 놀란다.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몸쉴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C]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오. 혹시나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西方)인지 남방(南方)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막혀 하며,

“애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하였는데,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요?”
- [D]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마한들 죽겠느냐.”
-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금명간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 할까. 용장, 봉장, 반닫이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별찬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내일이 본 관사또 생신이라. 취중에 주망(酒妄) 나면 나를 올려칠 것이니 형문(刑問) 맞은 다리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 손가. ㉠ 만수운환(漫垂雲鬢) 형클어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엇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쾌하여 죽거들랑, 달려들어 둘러업어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의 적막한 데 뉘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뒷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 주고, ㉡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춘향지묘(守節冤死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부디 나의 원통함이나 풀어 주오. 애고애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하릴없이 걸인 되어 이집 저집 걸식하다가 언덕 밑에 졸면서 자진하여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귀 두 날개를 딱 벌리고 동덩실 날아들어, 두 눈을 파먹은들, 어느 자식 있어 후여 하고 날려 주리.”
- “우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
- [E] 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느냐?”
- 어사또 작별하고 춘향 집에 돌아왔다.
- 작자 미상, 「춘향전(春香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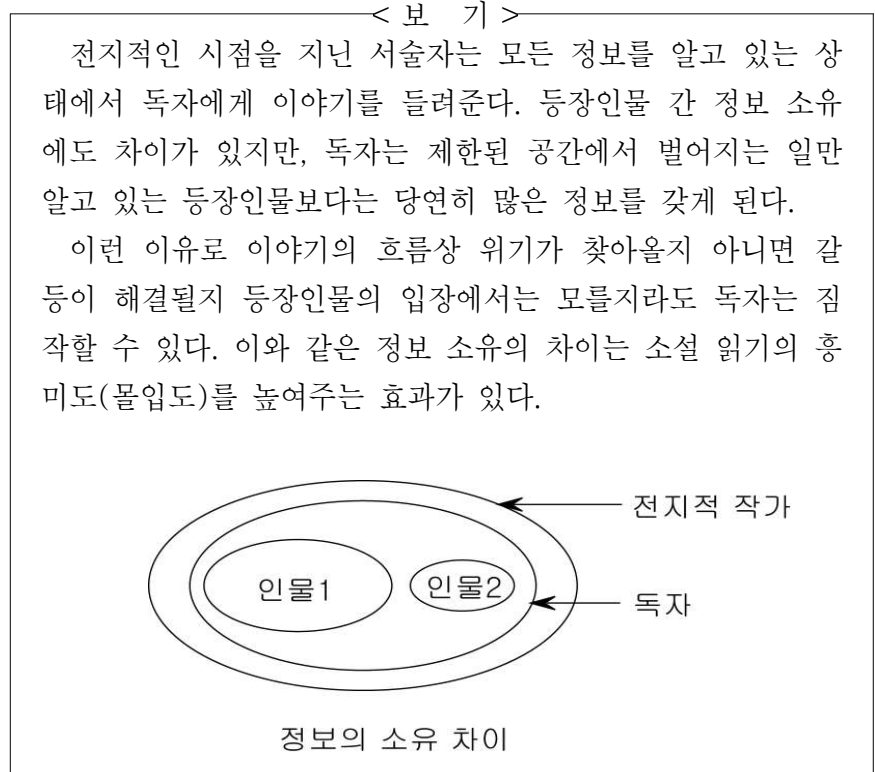
40.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향은 까마귀 소리를 듣고서 재회에 대해 확신한다.
- ② 춘향은 간밤에 꿈을 꾸 후 흥몽이라 여기고 좌절한다.
- ③ 월매는 걸인 행색의 이몽룡을 만난 뒤 실망감을 느낀다.
- ④ 봉사는 춘향이 들려 준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다.

41. ㉠ ~ ㉡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과장의 방법으로 극중 상황을 부각시킨다.
- ② ㉡ : 언어유희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킨다.
- ③ ㉢ : 관용적 표현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한다.
- ④ ㉣ : 상투적인 표현을 통해 해학성을 높인다.
- ⑤ ㉤ :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상황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42. <보기>의 관점으로 [A] ~ [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서술자는 옥중에 대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정보를 춘향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제공한다.
- ② [B] : 봉사가 춘향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써 일어날 사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주고 있다.
- ③ [C] : 이몽룡이 남원으로 내려 온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월매가 춘향에게 정보를 전해 주고 있다.
- ④ [D] : 이몽룡의 신분을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춘향이 이몽룡의 신분을 알아볼지 여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
- ⑤ [E] : 독자는 이몽룡의 언행을 근거로 춘향이 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3. 위 글의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봉사와 춘향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야.
- ② 월매는 춘향의 일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어.
- ③ 춘향은 이몽룡을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다리고 있어.
- ④ 이몽룡은 월매에게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를 보여.
- ⑤ 월매에게 한 말로 보아 춘향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있어.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구운 그릇을 사용한 것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 모닥불에 익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라고 추정한다. 이것이 ‘노천요’의 초기 형태인데, ㉠ ‘노천요’는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500℃ ~ 700℃ 이상으로 화력을 올릴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구운 그릇은 곡식의 낱알이나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좀 더 단단한 그릇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구덩이를 약간 파고 그릇과 나무를 지그재그로 켜 후 불을 때는 방법으로 높은 열을 얻었다. 청동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이런 방식의 가마를 ㉡ ‘수혈요’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장한 가마는 ‘지하식 요’이다.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에는 땅속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간 가마에 연료를 공급하는 부분과 그릇을 익히는 공간, 그리고 연기가 빠지는 부분을 고안해 냈다. 상향하는 불꽃은 천장을 향해 위로 올라가 반대편의 굴뚝을 통해 빠져나간다. 따라서 바닥은 뒷부분의 각도가 약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후의 가마 구조는 대부분 ‘지상식 요’이며, 방의 수와 구조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 ‘단실요’는 아궁이의 열이 경사진 등요를 따라 옆으로 흐르면서 그릇을 익힌 후에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마는 고려시대 청자 가마와 15~16세기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 백자 가마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가마의 길이가 10m 이상만 되어도 뒤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천장에 있는 창구멍을 통해 창불을 넣었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측면 출입구로 뿔감을 보충하였다.

단실요의 내부에 같은 간격으로 불기둥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진흙으로 만든 불기둥이 천장까지 닿지 않아 옆으로 흐르는 불꽃을 상, 좌, 우로 골고루 갈라지게 하거나 기둥 주변에서 맴돌게 하여 효율적으로 불꽃을 유도하고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불기둥 때문에 갇힌 열기는 가마 안의 온도를 오래도록 은은히 유지시켜 그릇을 서서히 익게 한다. 불기둥 뒤에 측면 출입구를 만든 것은 장작을 보충하거나 그릇을 넣고 빼는 일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구조의 가마를 ‘단실 불기둥요’라 부른다.

17세기 이후에 유행한 ‘분실요’는 여러 개의 불창기둥(불기둥에 작은 창문을 낸 것)을 설치한 뒤 그 위에 격벽\* 시설을 갖춰 변조실\*을 몇 개의 방으로 나눈 구조이다. 그 때문에 단실요에서 나타난 불기둥의 기능이 분실요에서 더욱 강해졌다. 곧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이 첫 번째 변조실부터 차례로 직진하다 격벽에 막히면 하향하여 빙글빙글 돌아 그릇을 익히면서 불기둥 사이를 통과해 다음 변조실로 이동하며, 측면 출입구로 뿔감을 공급받아 매 변조실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분실요에서는 변조실 바닥의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격벽이 있는 위치에 계단식 단을 만들어 불창기둥을 더욱 효과적으로 세우면서 변조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계단 위에 격벽이 설치되는 가마를 ‘분실 계단식 요’라고 하여 계단이 없는 분실요와 구별한다.

\* 격벽 : 변조실을 여러 칸으로 나누기 위해 천장에 설치한 벽.

\* 변조실 : 흙으로 빚은 그릇을 굽기 위해 놓아두는 공간.

44. 위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불창기둥이 있으면 가마의 열효율은 떨어진다.
- ② 좋은 그릇을 굽기 위해서는 가마 온도를 수시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③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릇이 낮은 온도에서 구운 그릇보다 더 단단하다.
- ④ 가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구조의 가마를 만들어야 한다.
- ⑤ 높은 화력으로 그릇을 굽기 위해서는 공기에 노출된 가마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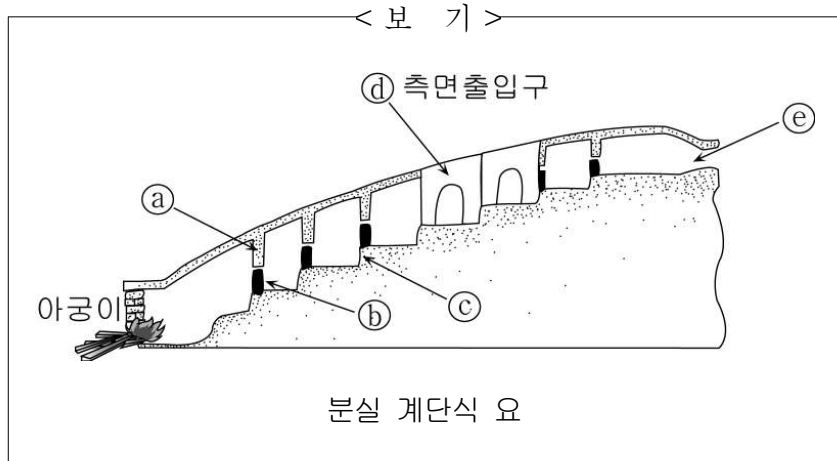
가마는 내부의 열 흐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승염식(昇焰式)’은 불꽃이 굴뚝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조이며, ‘횡염식(橫焰式)’은 열기가 수평으로 전달되어 가마 끝의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여 가마 안에 열기가 오래 머물도록 한 구조이다. ‘도염식(倒焰式)’은 열기가 가마 내부에서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바닥 쪽 구멍을 통하여 굴뚝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구조로 열효율이 가장 높다.

- ① 불기둥이나 격벽 시설은 승염식에 필요한 장치야.
- ② 지하식 요는 도염식으로, 열효율이 가장 높아.
- ③ 수혈요는 구조상 횡염식과 도염식의 중간 형태야.
- ④ 단실요는 열이 옆으로 흘러가는 횡염식이야.
- ⑤ 분실요의 격벽은 도염식의 바닥 쪽 구멍과 기능이 비슷해.

46. ㉠에서 ㉡으로 바뀐 이유와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A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다.
- ② B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하였다.
- ③ C 회사는 기존 제품의 취약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 ④ D 그룹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였다.
- ⑤ E 디자인 센터는 현대인의 기호를 고려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47. 위 글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길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열효율을 극대화한다.
- ② ㉡은 열을 가두고 유지시켜 그릇을 잘 익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그릇을 굽는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은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 ⑤ ㉤은 가마 속 연기와 남은 열기가 빠져나가는 곳이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를 기술 매체의 시대라고 부를 때, 그 출발점은 19세기에 등장한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 사진은 ㉠현실을 기록하는 훌륭한 매체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진기의 대중화로 인해 이미지의 재현 능력 못지않게 사진을 찍는 사람의 관점, 즉 주관성의 개입 가능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진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사진은 회화의 특성까지 지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사진을 변형 가능한 그래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은 사물의 재현에서 벗어나 사물을 재생산하고 복제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동영상의 역사에도 커다란 변화의 기제로 작용했다. 가공된 사진이 현실을 재구성한다면, 가공된 영화(동영상)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더 완벽하고 실감나게 ㉡현실을 재구성한다. 현실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미디어로 출발한 영화가 ‘미디어 현실’을 구축하는 데 오랫동안 기여한 것은 영화의 편집 기술인 ‘몽타주’였다. 몽타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의 시간 배열에 변화를 주어 영화의 허구적 현실을 구축했다. 20세기 동영상의 역사는 ‘영화적 현실’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든 것은 디지털 합성 기술이다.

마노비치는 디지털 영화가 애니메이션과 영화라는 이질적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영화는 사진의 연속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반면,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것이 디지털 영화이다. 마노비치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오늘날 영화는 실사 영화로 규정할 수 없고 디지털 처리 과정을 거친 일종의 그래픽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의 자유로운 변형 가능성은 새로운 이미지의 창조로 이어진다. 미디어에 의해 변형되고 재구성된 현실은 점점 실제 현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는 ㉣미디어 속 현실이 자체적인 현실 구성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현실과 영화 사이의 통로 역할을 했던 카메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토이스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에 놀랄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토이스토리』는 ‘광학적인’ 특성을 버리고 ‘그래픽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단초가 되는 영화이다.

\* 몽타주 : 영화에서의 필름 편집이나 영화의 구성과 기술에 관한 이론.

\* 토이스토리 : 1995년 개봉한 디즈니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체가 CG(컴퓨터 그래픽)로 만들어짐.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대상의 장단점을 견주고 있다.
- ② 대상 간의 영향 관계와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두 이론을 절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대상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의의를 밝히면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초창기의 사진은 주관성이 개입된 현실 해석의 도구였다.
- ②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카메라의 광학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 ③ 몽타주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영화의 편집 기술이다.
- ④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과 영화는 그래픽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 ⑤ 디지털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사진의 동질적 요소를 결합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50. ㉠ ~ ㉤ 중, <보기>의 ‘시물라크르’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것은?

< 보 기 >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야르의 개념인 ‘시물라크르’는 ‘원본 없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시물라크르는 ‘현실에 대응하는 대상을 찾을 수 없지만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무엇’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